

# 고양시청소년의회 정책제안서

<b>정책제안주제</b>	청소년 성평등 인식 증진 정책
<b>제안내용 요약</b>	성에 대한 의식이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지만 현재 고양시에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평등 인권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교육을 통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함으로써 서로를 존중하며 공동체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다.

## 제안배경, 현황 및 문제점 인식 등

### [제안 배경 및 현황]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성(性)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이 사회문제로 놓여있다.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군대와 출산 등의 상황을 비교하며 대립하고 있고, 여성의 사회참여와 몰카에 대한 사회 이슈로 인해 남녀의 포비아적 성격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고양시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 7월 5일 '성평등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고, 2017년에는 성평등 정책을 추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에 의거하여 약 34억71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였다.

시는 여기서 나오는 이자수익을 통해 공모사업을 진행하여 관련 단체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이 저출산 극복,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등 현실과 거리가 있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사업이었고 심지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공모사업은 존재하지 않았다. 아울러 2017년엔 9200만원의 예산을 통해 12개의 단체를 지원했으나, 올해엔 7800만원의 예산으로 7개 분야의 공모사업을 10개 단체에게 위탁하는데 그쳤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 향상된 사업을 기대하기엔 한계가 있다. 이는 고양시 104만 시민은 물론, 21만 청소년들이 수혜받기에 부족한 예산임이 분명하다. 무조건 예산을 높이자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업의 방향만 잘 잡는다면 현재의 예산과 시스템으로도 충분히 청소년들에게 성과 인권에 대한 의식을 함양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경기도 광명시에서는 시민을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 활동가 양성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여성과 인권, 성평등에 대한 이해와 젠더의식에 대한 감수성을 주제로 진행되며 교육을 수료한 이후에는 강사로 나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가장 인상 깊은 것은 시민이 시민을 교육하고 함께 성장해나간다는 것이다. 위탁이 아닌 시에서 직접 운영한다는 것도 특별한 점이다.

고양시도 여성인력개발팀에서 성평등 업무를 담당하여 진행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업이 외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위탁받아 진행하는 단체의 특성에 따라 그 색채가 달라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양시에서는 청소년과 일반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가이드라인을 통해 성평등 사업을 만들어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다고 느껴진다. 그렇기 때문에 성평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세 가지의 정책을 제안한다.

## 정책(또는 프로그램/사업) 제안내용

## 1. 고양시 성평등 교육강사 양성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적은 비용으로 높은 효율을 내기 위해 '교육'을 택했다. 현재 고양시의 예산도 기금의 이자수익을 토대로 마련되기 때문에 넉넉한 편은 아니다. 아울러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기 보다는 특정한 사업에 집중하여 밀어주는 것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5장 성평등 문화 확산 등 제21조(성평등 의식 제고)에는 "시장은 공공기관 및 가정·학교·사회교육에서 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사업을 개발·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근거가 분명하고 언제든지 시장의 의지에 한해서 진행할 수 있는 구조이다. 이는 수료자에 한해서 활동기회 부여와 함께 강사비를 지급함으로써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협업을 통해 관련된 시민 사회단체와 고양시가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광명시의 경우, 시의 산하기관인 여성비전센터에서 성평등 교육강사 양성을 주관하여 진행하고 있다. 고양시에도 여성회관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강사양성에 대한 계획안이 구성된다면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2. 고양시 청소년 성평등 교육 확대

인천광역시 동구에서는 현재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성평등 인권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의 내용은 젠더 감수성과 진로탐색, 성폭력·데이트 폭력 시 대응 방법, 성평등 실현과 성폭력 예방을 위한 그룹 활동 등 성평등 교육에 성교육까지 접목하여 강사가 기관을 직접 찾아다니며 강의하고 있다. 이와는 상반되게 고양시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이런 체계적인 성평등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을 것이다. 2017년 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을 통해 '성폭력 전문상담원'이 배출되었지만 이는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응할 수 있고, 성폭력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을 진행하고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다.

자체적으로 진행한 조사에 결과에 따르면, 현재 의정생활을 하고 있는 청소년의회 의원 중 90%가 넘는 비율이 지금까지 성평등에 대한 교육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하였다. 우리 사회에서 이어져오고 있는 남녀의 갈등을 풀기 위해선 서로의 차이를 인지할 수 있는 성평등 교육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의 확대를 위해선 교육과 관련된 예산의 증액과 고양교육지원청과의 거버넌스가 우선적으로 보인다. 강사단을 구성하여 고양시 관내 약 160개의 초·중·고나 청소년 기관시설에 교육을 나갈 수 있도록 강사 예산을 증액하고, 시와 교육지원청의 업무협약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서로의 자원을 공유하는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3. 고양시 청소년이 함께 하는 성평등 사업 계획

인천광역시의 경우에는 젠더전문가 양성 교육과정을 수료한 시민들과 함께 성평등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하였다. 이는 시민들의 자발적 시정참여 유도과 함께 시민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된 살아있는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우리 고양시에서도 교육을 진행하는 강사단과 교육을 받게 될 청소년자문단이 함께 하여 서로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현재 고양시의 주요성평등 정책엔 여성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선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사업을 추진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올바른 가치관 함양과 예방이다. 하지만 2018년 고양시 성평등 기

금을 통해 진행되는 여성 경제활동 촉진, 저출산 극복, 여성일자리에 대한 지원 사업은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당장 지자체 차원에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교육과 포럼 등의 행사가 최우선일 것이다. 아울러 청소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성평등, 청소년이 생각하는 젠더감성 등을 주제로 하여 포럼을 개최하거나 성과 관련하여 고민이 있는 친구들을 위해 또래상담사와 같은 사업이 진행되어 그들의 고충이 해결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을 위한 자문단이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 기대효과

### 기대효과

#### 1. 고양시 성평등 교육강사 양성

- 위탁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시의 자체적인 관계망을 구축할 수 있다.
- 청년들에게 강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 단발성 사업이 아닌 기수제로 진행하여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형성을 기대할 수 있다.
- 강사 양성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 2. 고양시 청소년 성평등 교육 확대

- 성에 대해 고민하는 청소년들의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 나와 다른 사람을 인지하고 인정함으로써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는 의식을 함양할 수 있다.
- 성교육과 연동하여 함께 진행하여 성과 젠더의식에 대해 일깨워 줄 수 있다.

#### 3. 고양시 청소년이 함께 하는 성평등 사업 계획

- 현재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토대로 계획할 수 있다.
- 청소년 당사자가 직접 기획함으로써 시정참여 기회를 제공한다.